

# 광주·전남 동파 피해 속출...식수·화장실 불편 '아우성'

### 북극 한파에 수도관 얼고 터지고...서민 많은 주택이 피해 심각 광주시 상수도본부에 문의해도 "민간업체에 의뢰하라" 답변만

"수리 의뢰가 너무 많아요. 얼어붙은 수도관 문의는 날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안내하는 것 외 할 게 없습니다."  
주민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집 화장실과 주방 물이 안 나와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중' 신호만 울리며 연결되지 않아 민간업체를 통해 수리 요청을 했다. 민간 업체측은 "인력도 부족하고 고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하루에 2곳 정도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루에만 50통도 넘게 걸려와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광주·전남지역에 북극발 강추위가 나흘간 이어지면서 수도관·계량기 동파 피해가 속출했다. 광주 상수도사업본부측은 공공수도관 동파 신고만 접수받고 각 가정으로 이어지는 배관이 동파된 경우 주민들 스스로 민간 업체를 통해 해결하라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민간 업체들도 인력 부족에 허덕이면서 최강 한파에 주민들만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부분이 살림살이가 여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코로나에 최강 한파까지 겹치면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주거·복지 정책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0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부에 따르면 북극발 한파로 지난 7일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접수된 동파 신고는 47건(수도계량기 42건, 수도관 5건)에 불과하다. 광주지역 13만 7000개에 이르는 수도계량기 중 한파로 동파된 게 47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민들과 민간 수도설비업체들 입장은 다르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공공수도관과 연결된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 건수만 파악하기 때문에 정작 주민들 체감 피해는 훨씬 크다는 것이다. 주택화장실·주방 배관이 터지거나 얼어붙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하루에만 수십 통씩 걸려왔지만 인력 형편 상 하루 고작 2건 정도 수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게 광주지역 민간 설비업체 관계자들 설명이다. 최강 한파가 본격화된 지난 8일부터 이같은 상황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화장실·주방 배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많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북극발 한파가 이어진 기간,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전화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민원인 전화가 쏟아졌지만 주택이 옥외에 노출된 배관 문제의 경우 사업본부가 아닌, 민간 업체로 의뢰하라는 답변을 듣는 민원인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수도본부측은 수도계량기까지만 관리를 맡고 있어 각 주택으로 들어가는 배관이 얼거나 터졌을 때에는 민간 시설업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민들은 한파로 주택이 수도관이 얼어붙어 물이 나오지 않고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했다가 "우리 일이 아니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 민간 시설업체를 찾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는 것이다. 수도가 얼어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를 걸었다가



주택 사이 한파로 깨져 물이 새고 있는 계량기. <수도 설비 민간업체 제공>

민간업체로 연락했던 B씨는 "먹는 물은 사다먹으면 되고 음식은 시켜먹으면 되지만 화장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해결하는 데도 오래 걸린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B씨는 "민간업체별로 수리비와 단가가 다르고 조금이라도 싼 업체를 알아보느라 전화를 하루 종일 돌렸다"면서 "돈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민간업체에 요청하기도 어려울 테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했다.



폭설과 한파로 광주지역에서 수도관과 보일러 배관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거나 터지는 동파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10일 오전 광산구 한 아파트의 주민이 얼어붙은 보일러 배관을 뜨거운 물수건으로 녹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민간 업체들도 빗발치는 요청을 받은 뒤 선착순으로 수리를 나가는 탓에 한파 추위에 온수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 광주지역 민간설비업체 직원 C씨는 "수리중에도 다른 곳에서 요청이 쏟아져 일단 문자로 주소와 상황을 개략적으로 남겨놓고 다른 곳을 알아보고 계시라는 응답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씨는 "배관이 짧고 심하게 얼지 않은 주택은 시간이

적게 걸리지만 이날 출동한 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은 1~4층까지 올라가는 모든 배관이 얼어 해결하는데 7시간 넘게 걸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민간업체 수리기사는 "영하 권의 한파가 지속되면 수도세를 아낀다는 생각보다는 조금씩 물을 틀어 놓는게 도움이 된다"면서 "계량기함도 사전에 점검해 보온재가 갖춰 있거나 파손된 경우 미리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한수원, '고양이에게 생선'?

### 한빛 5호기 부실점검 수사 중인 두산중공업에 6호기 예방정비 맡겨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를 두산중공업에 맡겼다. 한빛 5호기 부실 점검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6호기 정비 개선 용역을 맡기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겠냐는 지적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공동행동'은 10일 성명을 내고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체결한 한빛 5·6호기 정비개선 용역계약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한빛 5호기 부실 점검과 관련, 두산중공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빛 6호기 제 13차 계획예방정비를 두산중공업에 맡기는 게 말이 되는 게 이를 주장이다. 두산중공업은 한빛원전 5호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부실한 정비·점검 실태를 드러내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5호기 계획정비를 거쳐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1곳에서 용접봉이

잘못 선택됐다'는 취지의 건전성확인보고서를 내놓았다가 이후 원안위 조사 과정에서 2곳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검찰기소 점검이라는 비판을 받는가 하면, 자신들이 시공을 맡은 5호기 격납건물에서 커다란 공극 등이 발견되면서 애초 시공·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한빛 5호기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부실 용접 사실을 한수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온갖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데도, 한수원은 6호기 계획예방정비를 다시 두산중공업에게 맡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수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커녕, 또 다시 같은 사업을 맡기는 것은 주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경우 주민들 안전을 도외시한 책임 뿐 아니라 배임 행위 등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음주운전에 동생 잃은 가족 "가해자 엄벌을"

### "윤창호법 개선" 국민청원 올려

새해 첫날, 음주운전자에게 딸과 동생을 잃은 가족이 음주운전자(광주일보 1월 4일 6면)의 엄벌과 윤창호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유족들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월1일 음주행소니 도주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일 밤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한 도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정면으로 들이받힌 차량에 타고있던 숙진 여성 운전자 A씨의 가족들이다. 해당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1.6km 가량 달아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냈다. 유족은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 제 동생은 가족들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

았다"면서 "꿈 많고 하고 싶은 일 많은 27살 청년이 음주운전 때문에 두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자신만의 피부관리숍을 열기 위해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뒤 미용실·식당·치킨 아르바이트를 하며 창업 비용을 모으면서 자격증을 따고 6년 간 준비과정을 거쳐 전세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가게 오픈을 한 달 남겨놓고 있다 변을 당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하려고 가게 계약 후 인테리어 구상에 하루하루 들떠서 오픈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동생이었다"면서 "음주운전이 한 가정을 죽였다"며 슬퍼했다. 유족들은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조범이라는 이유, 진심인 척하는 반성문 몇 장 등으로 감형이 되는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술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조차 들지 않게 강력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오토바이 뒤쫓던 순찰차에 치여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부상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쫓던 경찰관이 순찰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었다.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교 인근 교차로에서 A경위가 몰던 순찰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1)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순간, 경찰차에 치였다. B군은 사고 경찰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서부경찰로 사건을 넘겨 수사토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의 경우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 3가지 위반 사항에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에 대한 처벌 예외 규정을 담은 개정안도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 1644-7990    ☎ 266-4150    ☎ 573-4150    ☎ 528-4150    ☎ 572-4150    ☎ 576-4150    ☎ 513-4150    ☎ 264-4150

듣든금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